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감동의 이야기

17일 문화공간이룸서 '마담상송, 매혹을 노래하다' 공연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전주시에 위치한 문화공간이룸에서 '마담상송, 매혹을 노래하다' 공연이 열린다. 이번 공연은 (재)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의 2023년 민간문화시설 기획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프로젝트로 예술과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의 주인공인 상송 가수 마담상송(김주연)은 한국의국어대학교 불어과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을 졸업한 예술가로, 어린 시절부터 음악, 뮤지컬, 그리고 프랑스어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이러한 열정을 무대에서 펼쳐며 꾸준한 음악적인 여정을 걸어왔다. 대학 졸업 후 IMF와 함께 가톨릭 해외원조기구에 근무하며 국제적인 활동을 했고, 이후 음악의 길로 발을 뒀다. 마담상송은 음악을 통해 감동과 감정을 표현하며 국내외에서 환호를 받았다. 그녀는 상송가수로서 활동하며 다수의 단독 콘서트를 열고, 프랑스 파리에서 상송과 아코디언을 공방하며 국제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2020년에는 프랑스 뮤지션들과 함께 상송 앨범 'Fascination(매혹)'을 녹음하여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의 파트너인 기타리스트 데자뷰(정재영)는 '매혹' 공연에서 편안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다. 그는 작곡, 작사, 편곡, 프로



'마담상송, 매혹을 노래하다' 포스터

듀싱 등 다방면의 음악 활동을 수행하며 과거 컬처레이블(Quagga Culture Label)의 대표로서 착한 밴드 이든의 기타리스트로도 활약하고 있다. 이번 마담상송, '매혹'을 노래하다 공연의 프

로그램으로는 Always with me - Hisaishi Joe, Fascination_매혹 Maurice de Feraudy/ Dante Plade Marchetti, Sous le Ciel de Paris_ 파리의 하늘 아래 - Jean Drejac / Hubert Giraudin, Les Feuilles Mortes_ 낙엽 - Jacques Prevert / Joseph Kosma, Ne me quitte pas_ 나를 떠나지 말아요 - Jacques Brel/ Jacques Brel, La Vie en Rose_ 장미빛 인생 - Edith Piaf/Louiguy, Dodo pour Maman_ 엄마를 위한 자장가 - 김주연/ 김주연, L'Hymne a l'amour_ 사랑의 찬가 - Edith Piaf / Marguerite Monnot, Non, je ne regrette rien_ 후회 안 해요 - Michel Vaucaire / Charles Dumont, Padam padam_ 빠담빠담 - Henri Contet/Norbert Glanzberg 등 가을과 걸맞은 아름다운 곡들로 이루어져 있어 더 큰 기대가 된다.

이번 공연을 주최하는 문화공간이룸의 대표는 "가을의 고요한 매력에 문화공간이룸을 찾아주시는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한다. '마담상송, 매혹을 노래하다' 공연은 음악의 매력과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나보는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문화공간이룸의 목표는 여러분께 아름다운 감성을 선사하는 것"이라며 "문화와 예술로 채워질 가을밤, 마담상송의 목소리로 웅장한 순간을 함께 나누길 바라며 여러분이 찾아오실 때마다 미소 짓게 하는 문화공간이룸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마담상송, 매혹을 노래하다'는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예약제이므로 네이버 예매를 통해 좌석 선택이 가능하다. /김재훈 기자

아름다운 남원 광한루원의 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

남원시는 광한루원이 전국의 다채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를 알리는 공식브랜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은 매력적인 지역 야간관광이나 밤에만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프로그램 100개를 선정하여 지역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남원시는 야간에도 광한루원을 산책할 수 있도록 K-명승(광한루원) 달빛 유희 프로그램을 진행해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했다.

광한루원 돌담길의 은은한 빛을 따라 내부로 들어가면 마주하게 되는 달나라 궁전 광한루와 무빙라이트로 동화적인 분위기를 더해주는 완월정, 마치 별빛이 쏟아져 내리



는듯한 삼신산은 신비로운 광한루원의 밤 풍경을 완성한다.

남원시 김경숙 문화예술과장은 "이번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선 선정"을 통해 남원의 아름다운 밤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남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야간 콘텐츠를 발굴해 체류형 관광객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벽골제 수여거 수문지 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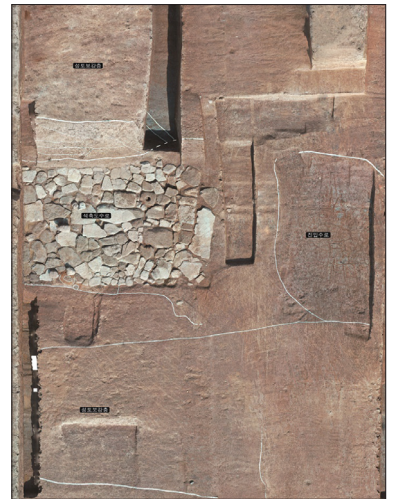
현장공개... 우리나라 고대 저수지 유적 최초 석축도수로 확인

김제시(시장 정성주)와 (재)전라문화유산연구원(원장 김미란)은 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김제 벽골제 수여거 수문지 발굴조사 현장 공개했다.

수여거는 벽골제에 존재했던 5기의 수문(수여거, 장생거, 중심거, 경장거, 유흥거) 가운데 가장 북쪽에 위치한 제1 수문이다. 그동안 진행된 발굴조사를 통해 제방에 위치한 장생거, 중심거, 경장거 3개 수문의 위치와 구조는 확인하였으나 수여거와 유흥거는 위치와 구조 등이 최근까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김제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는 김제 벽골제의 제1수문으로 알려진 수여거의 학술조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0년 시굴조사를 통해 그 위치를 확인하였고 금번 발굴조사에서는 수여거 동쪽 일부의 구조와 형태, 축조 시기 등을 파악했다.

조사결과 수여거의 구조는 석축도수로와 성토보강층, 진입수로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석축도수로의 바닥은 자연석을 반듯하게 다듬어 깔았으며, 석의 상면은 물이 쉽게 흐르도록 오목하게 치석 되어 있었다. 특징적인 것은 문화석 1매가 확인되고, 이를 경계로 안쪽과 바깥쪽의 축조기법이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성토보강층은 석축도수로의 하층을 비롯해 남북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용수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점성이 강한 갈갈 및 회청 색점토와 박석 등을 혼용해 치밀하게 성토하였으며, 규모는 조사지역 바깥쪽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어 본래 더 큰 규모였을 것으로 확인된다. 진입수로는 석축도수로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성토보강층을 굴착하고 조성했으며



김제 벽골제 수여거 도수로 전경

바닥에는 점토와 박석을 혼용해 보강했다. 기능은 용수의 유속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단에서는 이번엔 확인된 수여거의 출토유물을 고려했을 때, 시기는 통일신라시대에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석축도수로는 우리나라 고대 저수지 유적에서 최초로 확인된 사례로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으며, 향후 벽골제의 성격과 규모 등을 파악하는데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15회 늘인 김환태 문학제 성황리 개최

(사)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와 문학사상사, 늘인문화회가 주최·주관하고 무주군과 전북문인협회가 후원한 제15회 늘인 김환태 문학제가 지난 11일 무주늘인문화관 영상실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유호연 무주군 부군수를 비롯한 김환태문학기념사업회 이병명 회장, 전북문인협회 김명 회장, 전북예총 소재호 회장 등 1백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김환태평론문학상 및

제5회 청소년문학상 시상식 등에 함께 했다.

제34회 김환태평론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동식 교수(문학평론가)가 저작 '한국 근대문학의 궤적'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제5회 김환태청소년문학상 시상식에서는 서울중앙고등학교 2학년 한상원 학생(작품명 무주 제일건재)이 대상(문체부장관상)의 주

인공이 됐다. 이외에도 금상(전북도지사상)은 홍주고등학교 1학년 박효은 학생(작품명 머무와 늑대), 은상(전북도교육감상) 무주중학교 3학년 구나경 학생(작품명 무주의 여름), 동상(무주군수상)은 신일중학교 3학년 김조은 학생(작품명 꺼진 반딧불이), 전라고등학교 2학년 이학준 학생(작품명 스트로보 효과), 임해린 학생(작품명 빛나무 아래의 약속)이 받았으며 가장(무주군수상)에는 안양예술고등학교 3학년 김태현 학생(작품명 범을 만난 밤)의 7명이 선정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문화재단, 환경 창작공연 선보여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난 11일 팔복예술공장 카페 씨너스에서 환경 창작공연 '지구빌-비상대책위원회'를 선보였다.

이에 따르면 '지구빌-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공연·다원 분야 예술인 공모에 선정된 유현진 연출의 창작극이다. 이는 점점 무너져 가는 지구빌 아파트를 배경으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은 대표 동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그렸다.

이날 공연과 더불어 관객과 함께하는 분리수거 게임, 지구를 지키는 비누 만들기 체험도 진행됐다. /정은성 기자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24일 김제서 공연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네 번째 이야기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이 오는 24일 오후 7시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진다.

가족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은 독일의 작곡가 흠퍼딩크의 오페라를 한국어 가사로 준비하여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흥미롭게 꾸민 작품이다.

흠퍼딩크의 누이동생인 아델하이트 베테가 그림형제의 동화를 바탕으로 쓴 대본에 곡을 붙였고, 누이동생의 아이들이 이 음악 연극을 보고 무척 좋아하자 다시 다듬어 온 가족이 함

께 할 수 있도록 오페라로 만들었다.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하고 김제시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여 지자체 지역주민들에게 예술이 주는 기쁨과 문화예술을 통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마련해 시민들에게 한층 즐거운 공연을 김제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진행한다.

관람권 예매는 오는 14일 오전 8시부터 현장 및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gimje.go.kr/art>)에서 동시 선착순 구매가 가능하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형회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